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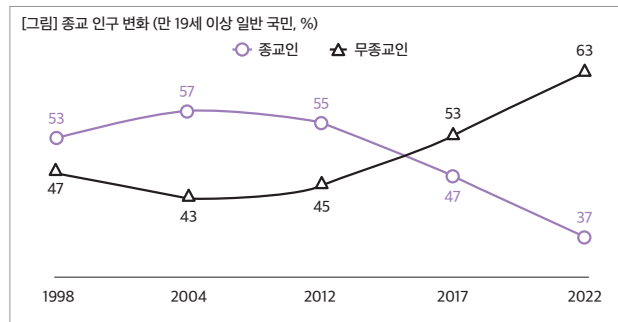
## 주제 해설

### Living life with Jesus!

#### 탈종교화의 가속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1998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해 온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 조사’의 결과를 엮어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를 출간했다. 이 리포트는 개신교를 포함한 우리나라 종교 전반에 관해 몇 가지 중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먼저 2022년에 실시한 종교 인구 조사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37%, 무종교인 비율은 63%이다. 한국인의 종교인 비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은 2022년이 처음이었다.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 조사’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약 20년간 종교인의 비율은 무종교인의 비율보다 앞섰다. 그런데 2017년 처음으로 무종교인의 비율이 종교인의 비율을 앞서기 시작했고, 이후 꾸준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2022년에 얻은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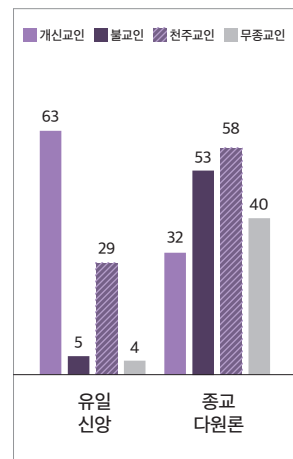
이 리포트에는 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도 있다. 1998년 첫 조사 이래, 줄곧 한국 개신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이유로 선택한 것은 ‘구원과 영생’이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이 개신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이유로 등장했다. 2017년 조사에서 37%를 차지했던 ‘마음의 평안’이 이번 조사에서 42%로 올랐고, 43%였던 ‘구원과 영생’이 오히려 36%로 감소했다. ‘마음의 평안’을 신앙생활의 첫 번째 이유로 꼽은 비율은 다른 종교들이 개신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었는데, 개신교에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개신교인 10명 중 4명이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씩씩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꼼꼼이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 흔들리는 유일 신앙?

이 리포트에서 또 한 가지 곱씹어 생각할 만한 대목이 있다. 바로 현재 무종교인들이 과거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묻는 항목이다. 무종교인들 중 과거에 불교를 믿었던 사람은 15%,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은 18%인 데 반해, 개신교는 무려 66%에 달했다. 다시 말해, 개신교를 믿었던 사람들 중 개신교를 버리고 무종교인으로 돌아선 사람들의 비율이 불교나 천주교 등의 다른 종교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았다.

또한 종교 다원론과 관련된 항목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개신교인 응답자 가운데 유일 신앙, 즉 기독교에만 구



(목회데이터연구소)

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였다.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유일 신앙을 믿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종교 다원론을 믿는 비율도 32%로 낮지 않았다. 개신교인 10명 중 3명은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교회를 다니는 10명 중의 3명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영생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기독교가 유일 신앙을 믿고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 결과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안다면, 기독교를 떠나 무종교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안다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까? 또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

지금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분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삶의 변화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점검해야 한다. 또 그것을 다음세대에 가르쳐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신분과 그분의 사역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잘 담겨 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들이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이 잘 담겨 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기독교는 두 가지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첫째는 로마의 박해였다. 주후 1세기에 기독교는 로마의 핍박을 받았다. 로마 황제들 중에는 스스로를 신격화시킨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명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밧모섬으로 유배 보낸 도미티아누스이다. 그는 스스로를 ‘Dominus et Deus(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고 칭하며 자신을 제국의 황제뿐 아니라 ‘주님이자, 신’으로 섬기라고 명령했다. 유일 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황제의 요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다른 주님을 섬길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이 로마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둘째는 이단의 창궐이었다. 특별한 지식, 즉 ‘영지(靈智)’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는 기독교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다. 영지주의는 물질 세계를 악하다고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의 영혼이 물질 세계에 갇혀 있는데, 영혼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계시된 지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로마의 핍박과 영지주의의 창궐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는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밝혔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은 분명하다. 그가 말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길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 또한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이 밝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였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요한은 자신만의 독특한 신학적 이해가 묻어나는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7개의 표적, 7개의 공식적인 대화, 7개의 자기 선언이 나온다. 요한은 '7'이라는 완전한 숫자를 활용해서 완전한 예수님을, 그리고 완전한 그분의 사역을 묘사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의 복음서에 담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했다.

###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Εγώ εἰμι)'**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7개의 '에고 에이미'가 등장한다. 헬라어인 에고 에이미를 번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온다.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물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출 3:14). 에고 에이미는 이 말씀과 같은 뜻이다.

즉,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라는 선언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7개의 자기 선언을 통해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한다.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받고,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으로 고민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다.

###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다음세대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자기 선언 중에서 4가지를 선택해서 공과로 구성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요 6:35)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요 10:11)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요 8:12)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요 15:5)

올여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4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살펴보고 싶다. 이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우리가 먼저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기대한다. 탈종교화, 종교 다원론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름이 되길 기도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3).